

호주 축산 전망: 2026/27년과 중기 전망

전 기 석*

1. 개요

2026/27년 호주 축산업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 세계 식품 수요 확대와 신규 시장 개방은 수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후 불확실성 확대와 국제 무역 환경 변화는 산업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생산액을 달성한 호주 축산업은 2026/27년 들어 생산량과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참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ABARES: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은 호주의 주요 축산 품목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ABARES)이 발간한 「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를 바탕으로 호주 축산업의 2026/27년 전망과 2030/31년까지의 중기 전망을 중심으로, 주요 품목별 생산·무역·가격 동향과 위험 및 기회요인을 정리하였다. 특히, 본고는 소, 양 및 양모, 원유 및 유제품, 돼지고기, 가금육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ABARES 전망에 따르면 2025/26년 호주 농업 총생산액(the gross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은 사상 최고 수준인 1,014.1억 호주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6/27년에는 생산량과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6% 감소한 949.7억 호주 달러로 전망된다. 특히 축산 및 축산물 생산액(the value of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은 경매장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8% 감소한 434.3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박사과정(pon98128@korea.ac.kr).

본고는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ABARES: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에서 2026년 3월에 발간한 보고서 '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 March Quarter 2026'의 제9장(Beef and cattle), 제10장(Lamb, sheep and wool), 제11장(Dairy), 제12장(Pigs, poultry and eggs)을 번역·정리한 것임.

억 호주 달러로 예상된다(〈그림 1〉 참조).¹⁾ 주요 품목별 전망에 따르면 2026/27년 소와 송아지의 경우 도축 생산액 기준 전년 대비 약 30.5억 호주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sheep)과 램(lamb)의 경우 전년 대비 약 7억 호주 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돼지(pigs)와 가금류(poultry)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1.2억 호주 달러, 3.3천만 호주 달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의 경우 대표적으로 양모는 3.5억 호주 달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유는 2.6억 호주 달러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²⁾

2026/27년 호주 농업 전망에는 기후 여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ABARES는 2026년 3~5월 호주 남부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건조한 기후는 작물 생산에 필요한 목초 생육과 조사료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 무역 환경 역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정책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호주 축산물 수출 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³⁾ 한편, 2026년 3월 24일 호주와 유럽연합(EU)은 호주-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A-EU FTA: Australia-European Union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은 소고기, 양고기, 유제품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의 유럽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고기와 양고기는 기존 대비 각각 약 8배, 5배 킬로 물량이 증가하였으며, 유제품은 전체 품목의 87.3%가 관세가 철폐되었다.⁴⁾ A-EU FTA는 향후 호주 축산물 및 유제품 수출 확대를 견인할 중장기적 기회요인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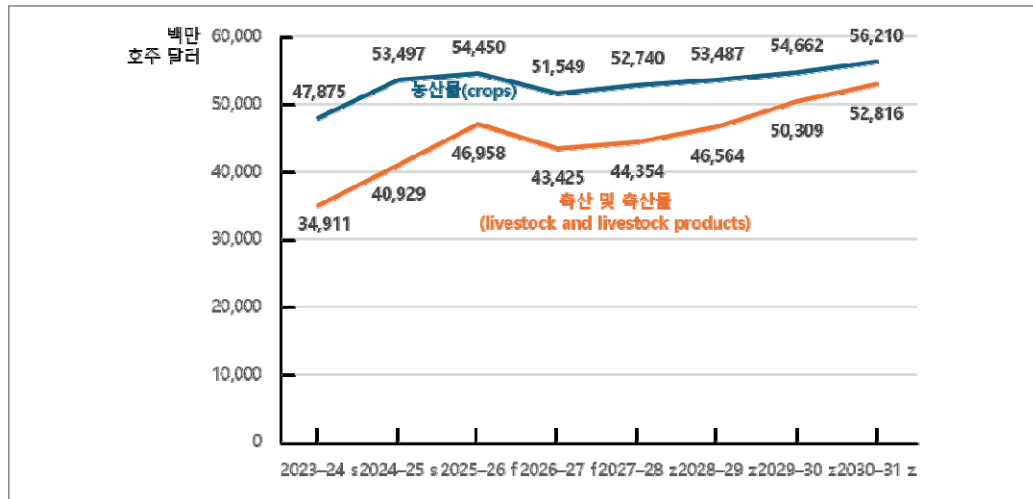
ABARES는 중기적으로 2030/31년까지 호주 농업 생산액과 수출액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글로벌 식품 수요 증가 및 무역 환경 개선

1) Gross value of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를 말하며, 생축 수출액(gross value of live exports)을 일부 포함함.
 2) ABARES 보고서에 따르면 소와 송아지, 양과 램의 도축 생산액은 전년 대비 가격 하락 및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반면, 돼지와 가금류는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양모는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원유는 원유 생산량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3) 미국은 2026년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체계를 조정하였으며,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소고기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함. 이에 따라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과 시장 접근성 변화가 향후 호주 축산업의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평가됨.
 4)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에 따르면 호주는 2026년 3월 24일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A-EU FTA)을 체결함. 이번 협정을 통해 호주산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특히 소고기, 양고기, 설탕, 곡물, 견과류, 원예 작물, 유제품, 해산물, 와인 등 주요 품목이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됨. A-EU FTA가 완전히 이행될 경우, 소고기는 연간 35,000톤(도체중 기준) 규모로 우대(preferential access)를 받으며, 이 중 30,600톤은 새롭게 확보된 물량임(이전 대비 약 8배 증가). 양고기 또한 30,851톤(도체중 기준, 신규 25,000톤) 보장을 받으며 이는 기존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A-EU FTA가 완전히 이행될 경우, 유제품의 경우, 품목의 87.3%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여 무관세로 진출할 수 있으며, 일부 품목(버터 5,000톤, 탈지분유 8,000톤, 고단백 유청 2,000톤)은 쿼터제가 적용됨(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검색일: 2026.6.15.).

등은 생산 확대 요인으로 평가되지만, 기후, 국제 무역 갈등, 가축 질병(생물보안 위험) 등은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제시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호주 축산 주요 품목(소고기, 양고기 및 양모, 돼지고기, 가금류, 유제품)을 대상으로 2026/27년 생산·무역·가격 전망, 불확실성 및 위험, 기회요인, 2030/31년까지의 중기 전망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간 농산물과 축산 및 축산물 생산액 전망



주 1)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 z는 중기 전망치임.

2) 축산 및 축산물 총생산액(gross value of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은 생축 수출액이 일부 포함됨.
 자료: ABARES(검색일: 2026.6.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1〉 축산 및 축산물 연간 생산액 및 수출액 전망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A) ^f	2026/27(B) ^f	증감액(B-A)	증감률(B/A)	
축산(가축: livestock)							
도축 생산액 (slaughterings)	소, 송아지	12,974	17,701	21,666	18,618	-3,048	-14.1
	양(sheep)	569	1,078	1,368	1,102	-266	-19.4
	람(lamb)	3,579	4,569	5,436	5,037	-399	-7.3
	돼지	1,834	2,014	2,213	2,330	117	5.3
	가금류	4,057	4,150	4,226	4,259	33	0.8
	염소	102	171	348	347	-1	-0.4
	기타	62	63	64	66	2	2.3

(계속)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A) ^f	2026/27(B) ^f	증감액(B-A)	증감률(B/A)
생축 수출액 (live exports)	소(cattle)	967	960	1,021	999	-23	-2.2
	양	46	56	48	33	-15	-30.5
	염소	8	4	6	5	-1	-20.9
	기타	199	198	199	185	-14	-7.2
축산 총생산액(A)		24,398	30,964	36,596	32,981	-3,615	-9.9
축산물(livestock products)							
축산물 생산액 (livestock products)	양모	2,857	2,496	2,855	3,209	354	12.4
	원유	6,234	5,959	5,989	5,727	-263	-4.4
	계란	1,287	1,388	1,396	1,377	-18	-1.3
	꿀, 양봉 산물	136	122	122	131	9	7.0
축산물 총생산액(B)		10,513	9,965	10,362	10,444	82	0.8
축산 및 축산물 총생산액(A+B)		34,911	40,929	46,958	43,425	-3,533	-7.5

- 주 1) 축산 및 축산물 총생산액(gross value of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은 생축 수출액이 일부 포함됨.
 2) 도축 생산액에서 소와 송아지는 젖소(dairy cattle)는 포함하고, 가죽(skin and hide)의 가치는 제외함.
 3) 도축 생산액에서 양, 램, 돼지는 가죽(skin and hide)의 가치는 제외함.
 4) 생축 수출액에서 소는 비육용(feeder/slaughter), 번식용(breeding), 낙농용(dairy)을 포함한 모든 소(all bovine)를 포함함.
 5) 생축 수출액에서 양은 번식용 가죽(breeding stock)을 포함함.
 6) 축산물 생산액에서 양모는 전지 양모(shorn wool), 도축 후 양가죽에서 회수한 양모(펠몽거 처리 양모: fellmongered wool), 가죽 부착 양모(wool on skins)를 모두 포함함.
 7) 축산물 생산액에서 원유는 유업체 반입량을 기준으로 원유 생산자 가격(farmgate price)으로 평가함.
 8)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임.

자료: ABARES(검색일: 2026.6.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축산 부문 전망

2.1. 소고기(Beef and cattle)

2.1.1.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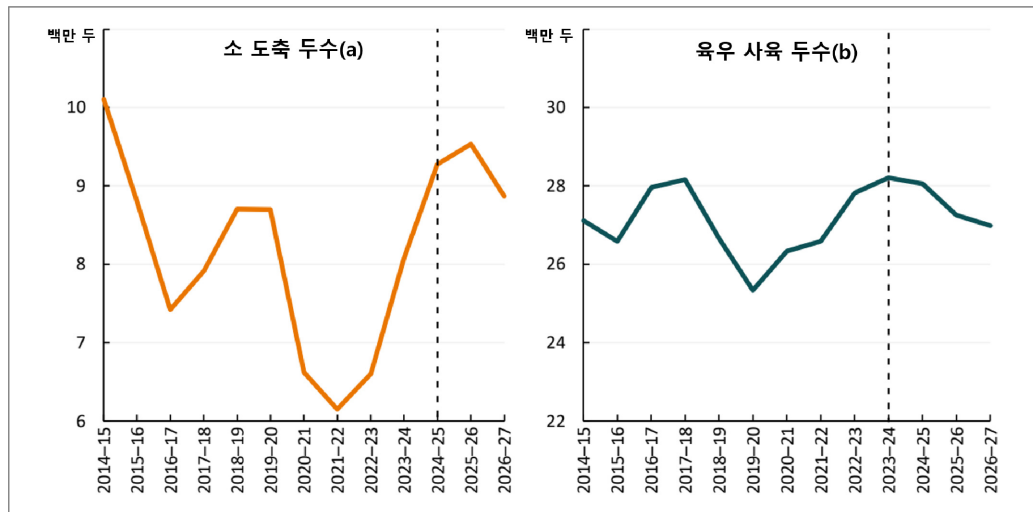
2026/27년 호주의 소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6% 감소한 264.1만 톤으로 전망된다(<표 2> 참조). 이는 소의 평균 도체중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축 두수가 감소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026/27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약 18%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소고기 생산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호주 주요 육우 사육 지역의 기후 여건이 지목된다.

호주 기상청의 최신 기후 전망에 따르면 호주 동부 지역의 가을 강수량이 평년 수준 또는 그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목초지 생육 여건이 악화될 경우, 사육 두수, 출하량 및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사료, 물과 같은 생산비가 증가하여 육우 사육 두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2026/27년 육우 사육 두수는 전년 대비 약 1% 감소한 2,700만 마리로 전망되며, 이는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감소는 주로 도축 증가의 영향으로 2025/26년 사육 두수가 약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2024/25년과 2025/26년의 높은 암소 도축률의 영향으로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 전역에서 번식용 암송아지 개체 수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6/27년 총 분만 두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⁵⁾ 반면, 퀸즐랜드주에서는 양호한 기후에 따른 암소 번식 능력 향상과 사료용 곡물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비 부담 완화의 영향으로 사육 두수 감소세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연간 소 도축 두수와 육우 사육 두수 전망



- 주 1) 점선 오른쪽 자료는 추정치 및 예측치임.
 - 2) (a) 도축 두수는 젖소(dairy cattle)와 송아지(calves)를 포함함.
 - 3) (b) 사육 두수는 6월 30일 기준임.
- 자료: ABARES(2026: 73)

5) 최근의 암소 도축 증가는 생산성이 높은 어린 암소보다는 노령 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표 2〉 소 사육 및 생산 전망

단위: 백만 두(사육), 천 두(도축), 천 톤(생산)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7/28 ^z	2028/29 ^z	2029/30 ^z	2030/31 ^z
소 사육 두수	30.4	30.1	29.2	28.9	29.0	29.5	29.7	29.6
육우 사육 두수	28.2	28.1	27.3	27.0	27.1	27.6	27.8	27.8
젖소 사육 두수	2.2	2.0	2.0	1.9	1.9	1.9	1.8	1.8
도축 두수	8,080	9,275	9,535	8,870	8,103	8,329	9,038	9,207
생산량	2,397	2,763	2,824	2,641	2,421	2,510	2,753	2,827

주 1) 사육 두수는 6월 30일 기준임.

2) 도축 두수는 젖소를 포함함.

3) 생산량은 송아지 고기(veal)와 통조림 소고기의 도체중(carcase weight) 환산량을 포함한 값임.

4)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 z는 중기 전망치임.

자료: ABARES(검색일: 2026.6.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1.2. 무역 전망

2026/27년 소고기 연간 수출량은 전년 대비 약 8% 감소한 148.3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2026/27년 사육용 및 도축용 생우 수출은 최근 몇 년간 호주 북부 전역에 걸쳐 사육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2% 증가한 67.4만 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3〉 참조).⁶⁾ 다만 이는 최근 10년 평균인 83.2만 두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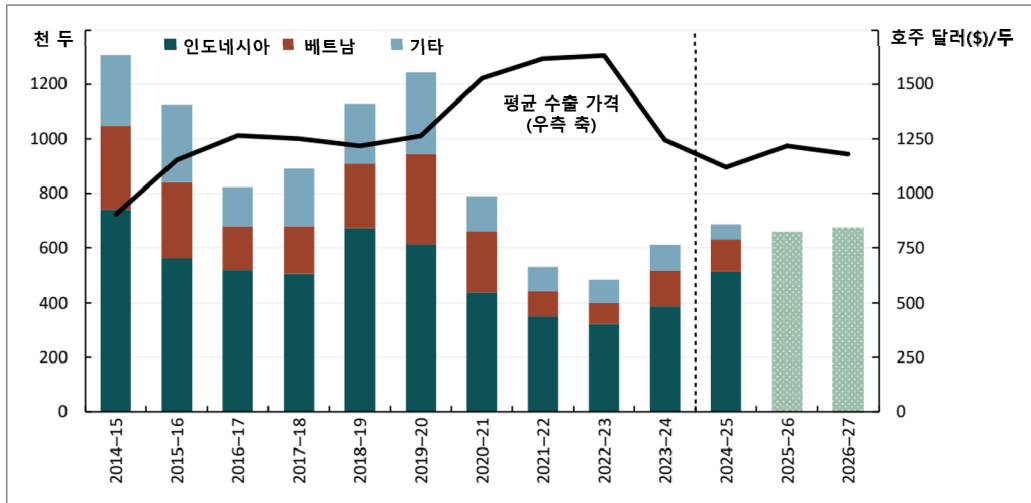
2026/27년 생우(비육우, 도축용 생우) 평균 수출 가격(FOB)은 전년 대비 약 3% 하락하여 두당 1,18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호주산 소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Rupiah) 약세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비육업체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⁷⁾

아울러, 호주산 생우의 수출 수요 또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을 비롯해 가격 민감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호주산 생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동남아시아 현지의 현지 소, 물소(buffalo), 돼지, 닭과의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주산 생우에 대한 수입 수요도 제한될 전망이다.

6) 이는 양호한 목초지 생육 여건과 함께 비육장(feedlot) 및 가공업체(processor)의 높은 수요가 생산자들에게 가축을 계속 사육하거나 국내 도축용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7) 호주산 소의 공급 증가로 인도네시아 비육장(feedlot) 사육용 소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줄어들었으며,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약세로 인해 수입업자의 마진(margins)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됨. 아울러, 인도네시아 인구 증가와 1인당 소득 상승에 따라 단백질 소비가 증가하며 비육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림 3〉 연간 생우 수출량 및 평균 수출 가격 전망



- 주 1) 점선 오른쪽 자료는 추정치 및 예측치임.
 - 2) 평균 수출 가격: 모든 국가의 1두당 연평균 가격이며 FOB(free on board) 가격임.
 - 3) 생우는 비육용과 도축용 모든 생우를 포함하지만, 번식용 소(breeder cattle)는 제외함.
- 자료: ABARES(2026: 74).

〈표 3〉 소고기 및 생우 수출 전망

단위: 천 톤(선적 중량 기준), 천 두, 백만 호주 달러, 호주 달러/kg, 호주 달러/두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7/28 ^z	2028/29 ^z	2029/30 ^z	2030/31 ^z
소고기	수출량	1,288	1,535	1,612	1,483	1,339	1,408	1,585	1,643
	수출액	12,378	16,095	18,817	15,298	14,502	15,709	18,204	19,442
	평균 단가	9.6	10.5	11.7	10.3	10.8	11.2	11.5	11.8
생우	수출 두수	611	687	660	674	658	657	657	656
	수출액	761	770	804	795	799	822	845	869
	평균 단가	1,244.9	1,120.4	1,218.3	1,180.0	1,214.4	1,249.8	1,286.3	1,323.8

- 주 1) 생우는 비육우와 도축용 생우(live feeder and slaughter cattle)를 말하며, 모든 소(bovine)를 포함함.
- 2) 평균 단가는 수출액을 수출량(또는 수출 두수)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 3) 소고기 평균 단가 단위는 호주 달러/kg, 생우는 호주 달러/두.
- 4)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 z는 중기 전망치임.

자료: ABARES(검색일: 2026.6.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1.3. 가격 전망

2026/27년 소 경매장 평균 가격(ABARES Saleyard Indicator Price)은 전년 대비 약 9% 하락한 1kg당 평균 705 호주 센트(도체중 기준)로 전망된다.⁸⁾ 다만, 2026/27년 가격은 하락하더라도 시장 내 상승과 하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실질가격은 최근 10년 평균보다 약 1%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격 전망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2026/27년 미국의 소고기 공급 부족은 호주 소고기 가공업체의 소 수요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즉, 미국 내 소고기 가격 상승으로 호주 내 대 미국 수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도축용 암소를 확보하기 위한 가공업체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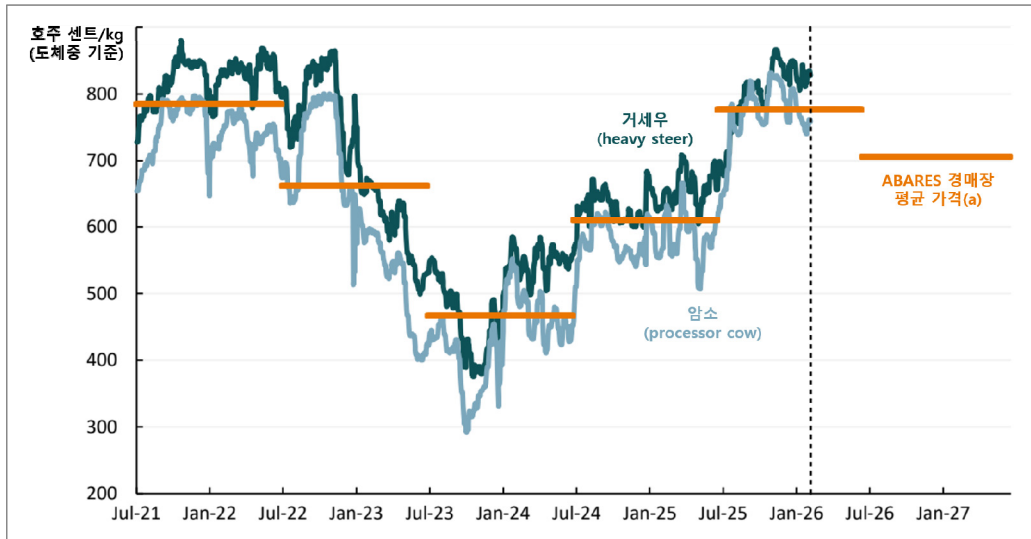
둘째, 중국의 WTO 글로벌 세이프가드(global beef safeguard) 조치는 2026/27년 상반기의 호주산 소고기 수출을 제한하고, 수출 물량이 다른 해외 시장으로 분산되어 국제시장의 소고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호주 가공업체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소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2026/27년 가뭄 피해 지역에서 재입식 소(restocker cattle)에 대한 수요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가뭄과 평년 이하의 기후가 예상되는 호주 남부에서는 암소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도축용 소를 확보하려는 가공업체 간 경쟁을 낮추어 경매장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목초지 생육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퀸즐랜드에서는 생산자들의 비육 의향이 높아지면서 재입식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⁹⁾

8) 2025/26년 가격은 전년 대비 약 27% 상승하며 1kg당 775 호주 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1/22년 1kg당 783 호주 센트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임.

9) 가축(소) 재입식(restocking)은 전염병, 가뭄 등으로 인해 사육 두수가 감소한 농장이나 축사에 새로운 소를 다시 들여와 사육하는 것을 말함. 재입식 소에 대한 수요는 소고기 가공 과정에서 대체 가능성(substitutability)이 높기에 경매장 가격(ABARES Saleyard Indicator Price)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소에 영향을 미침.

〈그림 4〉 일별 소 가격 지표 및 ABARES 경매장 평균 가격 전망



주 1) 점선 오른쪽 자료는 예측치임.

2) 경매장 평균 가격은 호주축산공사(MLA: Meat and Livestock Australia)의 전국 거세우(heavy steer) 및 암소(processor cow) 지표 가격의 연평균 가격이며, 무게는 도체중 기준임.¹⁰⁾

자료: ABARES(2026: 72).

〈표 4〉 소 가격 전망

단위: 호주 센트/kg(도체중 기준)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7/28 ^z	2028/29 ^z	2029/30 ^z	2030/31 ^z
경매장 평균 가격	466	610	775	705	740	762	785	809
실질가격	493	630	775	685	701	705	708	711

주 1) 경매장 평균 가격(ABARES Slaughterhouse Indicator Price)은 호주축산공사(MLA)의 거세우(heavy steer)와 암소(processor cow) 지표 가격의 평균임.

2) 실질가격은 2025/26 호주 달러 기준 실질 가치임.

3)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 z는 중기 전망치임.

자료: ABARES(검색일: 2026.6.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1.4. 불확실성 및 위험, 기회요인

2026/27년 호주 소고기 산업은 무역 정책 변화, 기후 여건, 가공업체의 수요, 그리고 가축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호주축산공

10) MLA(Meat and Livestock Australia)는 호주축산공사(또는 호주축산협회)로 불리며, 호주의 소, 양 등 축산 생산업자들에게 마케팅과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50,000명의 축산업자 회원들이 주주권을 보유함(허덕, 2022).

사(MLA: Meat and Livestock Australia)는 단백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소비 확대를 호주산 소고기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기회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주요 수출시장의 무역 정책 변화는 호주를 포함한 주요 소고기 수출국의 교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추가적인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2026/27년 호주산 소고기 수출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해 각각 약 45만 톤과 20만 5천 톤 규모의 무관세 수입할당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세 및 수입할당(quota) 정책으로 국가별 시장 접근성이 차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¹¹⁾ 특히, 브라질의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는 향후 호주산 소고기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의 최대 소고기 수출시장은 중국이며, 최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까지 시장을 확대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브라질이 일본과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이는 호주산 소고기의 수출 경쟁력에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¹²⁾

호주 경매장 가격은 수출용 소를 확보하기 위한 가공업체 수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호주 동부 지역에 광범위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 출하량 급증으로 인해 가공업체의 처리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육류 냉장 저장시설과 수출 인프라뿐 아니라 경매장 가격, 농가 소득에도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¹³⁾

마지막으로 가축 질병은 호주 소고기 수출시장과 축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북부 인접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럽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과 구제역(FMD: Food and Mouth Disease)이 발생하고 있다.¹⁴⁾ 이에 따라 현재 호주 정부는 외래 가축 질병과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생물보안(biosecurity)

11) 미국은 2026년 호주산 소고기에 대해 약 45만 톤 규모의 세이프가드 물량(safeguard quota)에 무관세를 적용함. 반면, 미국은 브라질에게 할당량(5.2만 톤) 초과 물량에 대해 26.4% 관세를 부과하고, 아르헨티나에게는 무관세 수입할당을 확대하여 총 10만 톤까지 허용함. 한편, 중국은 2026년 호주에게 20.5만 톤 규모의 무관세 수입 할당량(tariff-exempt quota)을 배정함. 이는 브라질(100만 톤), 아르헨티나(51.1만 톤), 우루과이(32.4만 톤), 뉴질랜드(20.6만 톤)보다는 적지만, 미국(16.4만 톤)보다는 큰 규모임.

12) 현재 일본과 한국은 질병 관련 우려로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2025년 브라질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로부터 구제역(FMD) 청정국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발표함.

13) 가뭄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는 추가적인 사료 공급 부담 등 생산비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출하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 가공업체는 노동시간 조정 등을 통해 단기적 공급 충격을 흡수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확충, 수출 경로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함. 과거 2023년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고, 이때 가공업체들이 증가한 공급량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해 가격과 농가 소득이 크게 하락함.

14) LSD는 살아 있는 가축과 번식용 자재(reproductive material), 오염된 장비, 흡혈 곤충 및 기생충(파리, 모기, 진드기 등) 등을 통해 확산될 수 있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산업계 및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2.1.5. 중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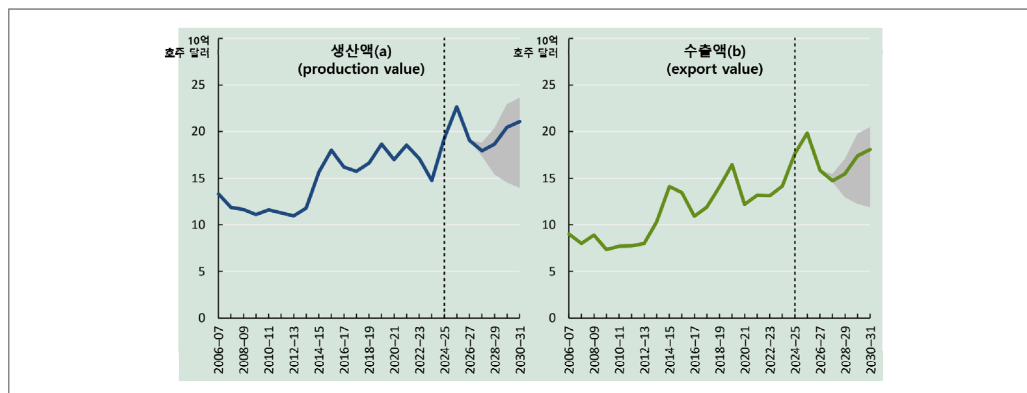
2030/31년 호주 소 생산액(production value)은 현재 생산 및 수요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완만하게 증가하여 211억 호주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액(export value)의 경우 181억 호주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¹⁵⁾ 소 도축 생산액 증가는 기존 시장과 신흥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소고기 생산량(beef production volume)은 소 평균 도체중(carcase weight) 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액 및 수출액 중기 전망에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세계 소고기 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경우, 호주 가공업체 수요와 경매장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양호한 기후 여건은 재입식 수요를 확대하여 이러한 상승 요인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입식 수요가 증가하면 초기에는 가축을 보유하려는 수요 때문에 출하가 감소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소고기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농장과 가공업체 생산성이 추세를 상회할 경우 소고기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생산액과 수출액의 하방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 첫째, 세계 소고기 소비가 추세를 하회하고 주요 수출시장에서 무역 분절화(trade fragmentation)가 심화될 경우, 호주 가공업체의 수요와 경매장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건조한 기후가 지속될 경우 농가의 사육 두수 감축(destocking)이 확대될 수 있다. 불리한 기후 여건은 농가의 재입식 수요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출하 증가로 소고기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나, 이후 총 사육 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망 기간 후반부의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15) 현재 생산과 세계 수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액(production value)은 실질 금액 기준 139억~236억 호주 달러 사이의 범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액(export value)의 경우 119억~205억 호주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됨(실질 금액 기준).

〈그림 5〉 연간 소 및 소고기 생산액과 수출액 증기 전망(실질 가치 기준)



- 주 1) 단위는 10억 호주 달러(billion)이며, 2025/26년 호주 달러 기준으로 물가 조정된 실질 가치 기준임.
 2) 점선 오른쪽 자료는 예측 및 전망치이며, 음영 부분은 기후 및 가격 변동성을 바탕으로 한 전망(projection) 범위임.
 3) (a) 생산액은 소 도축 두수(cattle slaughter)와 생우 수출량(live exports)을 기준으로 함. 도축 두수는 젖소와 송아지를 포함하되, 가족의 가치는 제외함. 생우는 사육용(feeder), 도축용(slaughter), 번식용(breeding) 소를 모두 포함함.
 4) (b) 수출액은 소고기(beef)와 생우 수출량(live exports)을 기준으로 함. 소고기는 송아지(veal) 고기와 물소(buffalo) 고기를 포함함.
- 자료: ABARES(2026: 71).

2.2. 양고기 및 양모(Lamb, sheep and wool) 전망

2.2.1. 생산 전망

2026/27년 양고기 생산량은 램(lamb)과 머튼(mutton) 공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약 7% 감소한 73.3만 톤으로 전망된다.¹⁶⁾ 이는 2023/24년과 2024/25년에 기록적인 수준의 도축이 이루어지면서 번식용 암양(breeding ewes)을 포함한 양 사육 두수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2025/26년과 2026/27년에 출하할 수 있는 램 두수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6/27년 램 도축 두수는 전년 대비 약 4% 감소한 2,250만 두로 전망된다. 이는 램 생산량 감소 및 양 떼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암컷 램을 보유하는 생산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26/27년 머튼 도축 두수는 전년 대비 약 16% 감소한 711만 두로 전망된다. 이는 기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많은 생산자가 번식용 암양 보유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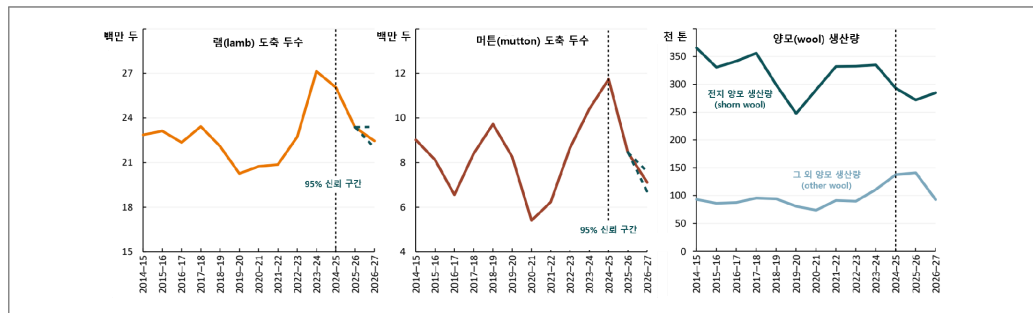
16) 2026/27년 비육장(feedlot) 이용 증가와 가공업체의 더 무거운 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도체 중량이 최근 10년 평균 대비 약 3%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양고기 생산량 감소 폭을 일부 상쇄할 전망이다.

호주 주요 양 사육 지역의 기후 악화는 2026/27년 양고기 생산 전망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평가된다. 호주 남동부 지역의 가을 강수량은 평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강수량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생산자의 조기 출하가 증가하며 양 출하량과 양고기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러한 기상 위험은 판매가격 하락과 사료비 등 생산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양 사육 두수 감소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27년 총 양모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지 양모(shorn wool)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가죽을 부착한 양모(sheepskin wool) 공급 감소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2026/27년 전지 양모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27.2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양 사육 두수 회복에 따라 털을 깎는 양의 수가 증가하고, 대부분 지역의 기후 여건이 개선되면서 두당 양모 생산량이 4.5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6/27년 전지 양모 생산량은 최근 10년 평균보다 약 13%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양 사육 두수가 과거보다 작고, 최근 육류 생산에 유리한 셰더 품종(shedder breeds)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¹⁷⁾

〈그림 6〉 연간 양(lamb, mutton) 도축 두수와 양모 생산량 전망



주 1) 점선은 ABARES farmpredict를 기반으로 한 95% 신뢰 구간을 의미하며, 점선 오른쪽 자료는 예측치임
 2) 양모 생산량은 greasy(세척 가공 전 원모) 환산 기준임.
 3) 그 외 양모 생산량은 도축 후 양가죽에서 회수한 양모(fellmongered wool), 양가죽을 부착한 양모(wool exported on sheepskins)를 포함함.
 자료: ABARES(2026: 84-85).

17) 셰더 품종(shedder breeds)은 털이 자연적으로 탈락하거나 양모 생산능력이 낮은 품종으로, 양모 생산보다는 육류 생산에 적합한 품종을 말함.

〈표 5〉 양 및 양모 생산 전망

단위: 백만 두(사육), 천 두(도축), 천 톤(생산, 도체중 기준)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7/28 ^z	2028/29 ^z	2029/30 ^z	2030/31 ^z
양	양 사육 두수	71.4	66.4	65.3	66.6	69.2	68.8	68.6	68.0
	램 도축 두수	21,146	26,060	23,380	22,460	22,685	24,499	25,479	26,244
	머튼 도축 두수	10,399	11,741	8,460	7,110	6,826	7,918	8,551	8,808
	생산량	916	919	789	733	736	814	860	892
양모	전지 양 두수	71.6	63.0	60.2	60.9	63.4	64.1	63.5	62.7
	전지 양모 생산량	318	280	260	272	284	287	285	282
	양모 총생산량	429	418	401	365	377	389	392	392

주 1) 양 사육 두수는 6월 30일 기준임.

2) 양고기 생산량은 도체중 기준으로 환산하였으며, 램(lamb)과 머튼(mutton)을 포함함.

3) 양모 생산량은 전지 양모(shorn wool), 도축 후 양가족에서 회수한 양모(fellmongered wool), 양가족을 부착한 양모(wool on skins)를 포함함.

4)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 z는 중기 전망치임.

자료: ABARES(검색일: 2026.6.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2.2. 무역 전망

2026/27년 생양(live sheep)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31% 감소한 3,349.1만 호주 달러로 전망된다. 생양 수출 두수는 2025/26년에 전년 대비 약 53% 감소하여 21만 두로 전망된 데 이어, 2026/27년은 전년 대비 약 23% 감소한 16.1만 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생양 수출 감소는 농가의 농작물 재배로의 경작 전환과 호주 정부의 해상 수출 금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호주의 혼합농업 지역(mixed farming regions)에서는 경작 전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높은 국내 가격과 거세양(wether)을 중심으로 한 도축 증가로 양 사육 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양 수출을 지속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8년 5월 1일부터 호주의 생양 해상 수출은 단계적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해상 수출을 폐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대응하여 생산자들은 생양 수출 대신 냉동 또는 냉장 포장된 양고기 생산 및 수출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호주의 양고기 수출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견고한 수요에 따라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27년 중국에서는 소고기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소고기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며 양고기로의 대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양고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면서 1인당 양고기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양고기 수입 수요는 2026/27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소고기 가격은 램(lamb)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산 고급 부위(premium cuts)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양고기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머튼(mutton)에 대한 수요는 작은 규모이지만 1인당 소비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⁸⁾

양모의 경우 주요 시장에서 모직 의류(woolen garment) 소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26/27년 세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은 최근 수년간의 재고 감소와 수요 확대에 따라 양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⁹⁾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무역 제한, 경제 성장 둔화, 소비자 신뢰 약화 등이 모직 의류 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6〉 양고기 및 생양 수출 전망

단위: 천 톤(선적 중량 기준), 천 두, 백만 호주 달러, 호주 달러/kg, 호주 달러/두

구분	2023/24	2024/25 ^a	2025/26 ^f	2026/27 ^f	2027/28 ^z	2028/29 ^z	2029/30 ^z	2030/31 ^z	
양고기	수출량	629	651	546	499	506	568	605	630
	수출액	4,783	5,664	5,924	5,370	5,489	5,925	6,496	6,963
	평균 단가	7.6	8.7	10.8	10.8	10.9	10.4	10.7	11.1
생양	수출 두수	507	444	210	161	160	15.0	15.0	15.0
	수출액	46.3	55.9	48.2	33.5	34.6	5.3	5.3	5.3
	평균 단가	91.4	126	230	208	216	350	350	350
양모	수출량	446	430	413	378	390	402	405	405
	수출액	3,030	2,758	3,163	3,514	3,749	3,915	4,001	4,076
	평균 단가	6.8	6.4	7.7	9.3	9.6	9.7	9.9	10.1

주 1) 생양은 번식을 위한 양(breeding stock)을 포함함.
 2) 평균 단가는 수출액을 수출량(또는 수출 두수)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3) 양모 수출량은 greasy(세척 가공 전 원모) 환산 기준이며, 이때 수출량과 수출액은 양가죽(sheepskins), 원모(greasy wool), 반가공 양모(semi-processed wool)를 포함함.
 4)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 z는 중기 전망치임.
 자료: ABARES(검색일: 2026.6.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8) 그 외에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의 양고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해당 지역에서는 2026/27년 이후, 호주산 양고기 가격 부담 완화, 인구 증가, 관광산업 성장 및 1인당 소득 증가에 따른 붉은 육류 소비 확대가 양고기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됨.
 19) 2026/27년 양모 및 양모 의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공공 부문 전반에 제복 관련 정부 지출 증가, 스포츠 웨어 및 혼방 섬유 제품 가공에 양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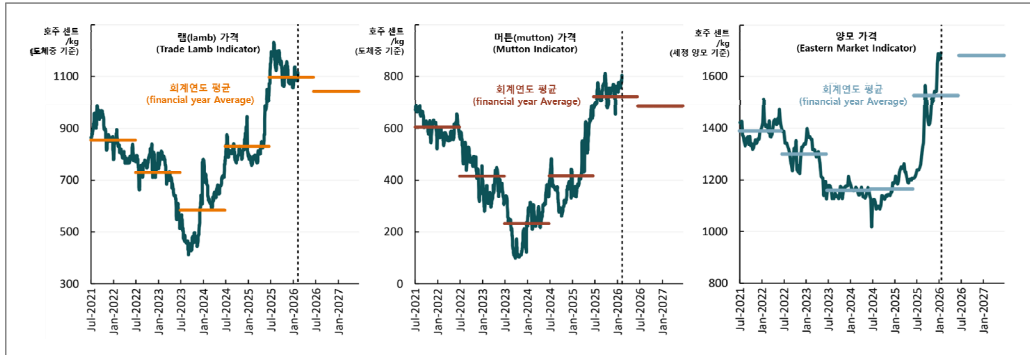
2.2.3. 가격 전망

2026/27년 양(lamb and mutton) 경매장 가격(saleyard price)은 2025/26년 대비 다소 하락하겠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램 가격은 도체중 기준 1kg당 1,040 호주 센트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 하락한 수준이나, 최근 10년 평균보다 실질가격 기준으로 18% 높은 수준이다. 머튼 가격은 도체중 기준 1kg당 685 호주 센트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10년 평균보다 실질가격 기준으로 약 23%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2026/27년 양 가격은 국내외 시장의 수요와 공급 여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호주는 세계 최대 양고기 수출국으로 2025/26년은 생산량의 약 85%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호주 달러 강세와 대체 단백질 공급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은 호주의 수출 경쟁력을 낮출 수 있으며, 가격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가공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재입식 수요 증가로 경매장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공업체의 수익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공업체는 생산능력(capacity)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경매장에서 램과 머튼 수요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일부 가공업체는 2026/27년에 생산능력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부위를 생산할 수 있는 고체중 개체(heavier animal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격 하락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2026/27년 남부 호주의 기후는 목초 생육에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양모 가격 상승이 더해지면서 생산자들의 양 사육 두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매장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메리노 양(merino lambs)과 번식용 암양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2026/27년 양모 가격은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한 1kg당 1,680 호주 센트로 전망되며, 2018/19년 이후 가장 높은 평균 가격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호주산 양모 공급 감소와 중국의 견고한 원모 수요가 맞물리며 중국 가공업체 간 원모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²⁰⁾

〈그림 7〉 양 및 양모 가격 전망



주 1) 점선 오른쪽 자료는 예측치임
 2) 양은 도매중 기준이며, 양모는 세정 양모 환산(clean equivalent) 기준임.
 자료: ABARES(2026: 82-83).

〈표 7〉 양 및 양모 가격 전망

단위: 호주 센트/kg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7/28 ^z	2028/29 ^z	2029/30 ^z	2030/31 ^z
램 가격	584	830	1,095	1,040	1,050	1,008	1,039	1,070
머튼 가격	231	415	720	685	712	684	704	726
양모 가격	1,161	1,164	1,525	1,680	1,729	1,779	1,830	1,883

주 1) 램(lamb)과 머튼(mutton)은 전국 거래 지표 가격(National Trade Lamb/Mutton Indicator)임.
 2) 양모는 동부 시장 지표 가격(Eastern Market Indicator)임.
 3) 양은 도매중 기준이며, 양모는 세정 양모 환산(clean equivalent) 기준임.
 4)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 z는 중기 전망치임.
 자료: ABARES(검색일: 2026.6.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2.4. 불확실성 및 위험, 기회요인

2026/27년 호주 양 산업 전망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곡물 가격 하락과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정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 정부의 여러 무역정책 변화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양고기의 경쟁력과

20) 호주는 세계 최대 양모 수출국이며, 원모(greasy wool) 수출국임. 호주 양모 수출은 2025/26년에 최근 10년 평균보다 10%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2026/27년 호주 달러 강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원모 수요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모직 의류 시장 전망은 견고하며, 특히 중국에서 모직 의류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 가공업체의 원모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됨.

시장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4월부터 미국은 호주산 양고기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산 양고기에 부과되는 관세 15%와 비교하면 상대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양 사육 규모를 고려할 때 호주산 양고기에 대한 수입 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추가적인 무역정책이 시행될 경우, 호주산 양고기의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이 약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양산업협회(American Sheep Industry Association)를 중심으로 양고기 수입 제한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여건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EU 자유무역협정(A-EU FTA: Australia-European Union 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될 경우, 양고기의 유럽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이미 뉴질랜드-EU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한 뉴질랜드와의 경쟁에서 호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²¹⁾

또한, 가축과 작물을 함께 생산하는 복합 농가가 소득원 다변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양 사육 두수를 확대할 유인을 가질 경우, 이는 호주 양 산업의 기회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26/27년 양고기와 양모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밀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밀 가격은 4년 연속 하락이 예상되며 이는 최근 몇 년간 양 사육 두수를 줄여온 복합 농가의 양 사육 확대를 유인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2.2.5. 중기 전망

2030/31년 호주 양 산업 중기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생산 및 세계 수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액(production value)은 소폭 증가하여 실질 금액 기준 100억 호주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액(export value)은 9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²²⁾

생산액 및 수출액 중기 전망에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기존 및 신흥 수출시장에서 양 수요 확대는 가격 상승을 통해 생산액과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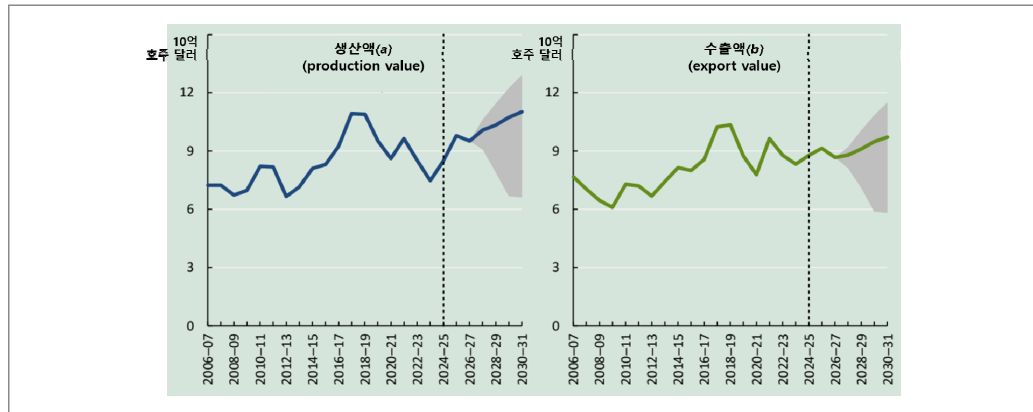
21)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에 따르면 호주는 2026년 3월 24일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A-EU FTA)을 체결함.

22) ABARES의 2030/31년까지 중기 전망은 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와 가격 변동성의 현실적인 범위를 반영하고 있음. 생산액은 실질 금액 기준으로 66억~129억 호주 달러 사이의 범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액은 58억~115억 호주 달러 사이의 범위로 전망됨.

분석된다. 세계 양고기 소비가 추세를 상회할 경우 가공업체의 수요가 강화되며 이에 따라 경매장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또한, 모직 의류 소비가 증가할 경우 양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기후 여건이 예상보다 양호할 경우 재입식 수요가 증가하여 도축 두수와 전지 양모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생산성이 추세를 상회할 경우, 양과 램의 평균 도체중이 증가하고 두당 양모 생산량(wool cut per head)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고기와 전지 양모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생산액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생산액과 수출액의 하방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 첫째, 세계 양고기 및 모직 의류 소비 증가세가 추세를 하회할 경우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주요 수출시장의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호주 내 재입식 수요가 감소할 경우, 생산액과 수출액은 더욱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건조한 기후가 지속될 경우 양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램과 머튼의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양 사육 두수 감소로 인해 도축 두수와 전지 양모 생산량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생산액과 수출액의 하방 압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8> 연간 양 및 양모 생산액과 수출액 중기 전망(실질 가치 기준)



- 주 1) 단위는 10억 호주 달러(billion)이며, 2025/26년 호주 달러 기준으로 물가 조정된 실질 가치 기준임.
 - 2) 점선 오른쪽 자료는 예측 및 전망치이며, 음영 부분은 기후 및 가격 변동성을 바탕으로 한 전망(projection) 범위임.
 - 3) (a) 생산액은 램(lamb)과 양(sheep) 도축, 양모(wool), 생양 수출량(live exports) 기준으로 함. 양모는 전지 양모(shorn wool), 도축 후 양가족에서 회수한 양모(fellmongered wool), 가죽 부착 양모(wool on skins)를 포함하며, 생양은 번식용 가족(breeding stock)을 포함함.
 - 4) (b) 수출액은 양고기(sheep meat), 양모(wool), 생양 수출량을 기준으로 함. 이때, 양모는 양가족(sheepskins), 원모(greasy wool), 반가공 양모(semi-processed wool)를 포함하며, 생양은 번식용 가족(breeding stock)을 포함함.
- 자료: ABARES(2026: 81).

2.3. 돼지고기(Pigs) 전망

2.3.1. 생산 전망

2026/27년 호주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도체중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51.4만 톤으로 전망된다, 호주 돼지의 도체중은 2014/15년부터 2024/25년까지 연평균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27년에는 사료용 곡물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생산자들이 사육 규모(가축 수)를 확대하기보다는 돼지의 도체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생산량 증가에 대응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가축 사육 시설 확장에 따른 높은 비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돼지고기 생산 전망

단위: 천 두(사육 및 도축), 천 톤(생산, 도체중 기준)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7/28 ^z	2028/29 ^z	2029/30 ^z	2030/31 ^z
사육 두수	316	319	322	325	326	328	329	331
도축 두수	5,799	5,759	5,925	5,996	6,056	6,116	6,178	6,239
생산량	468	473	498	514	523	533	542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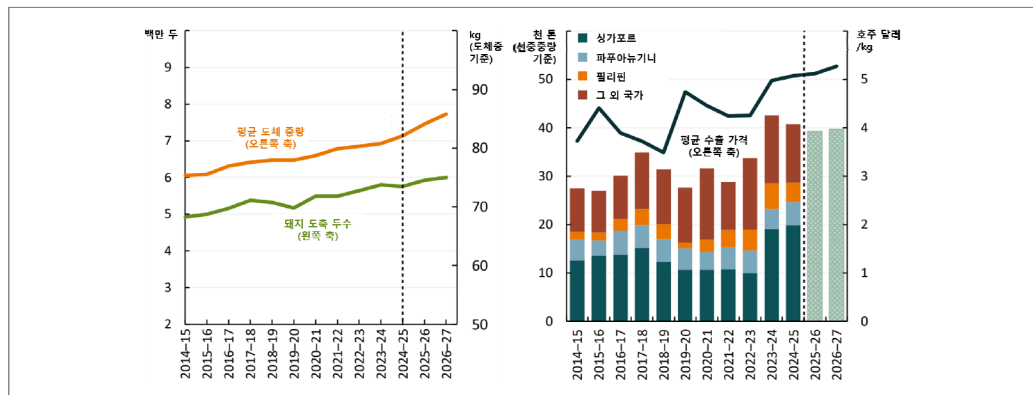
주 1) 사육 두수는 6월 30일 기준임.

2) 사육 두수는 번식용 후보돈(gilts)을 포함한 모든 사육 두수임.

3)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 z는 중기 전망치임.

자료: ABARES(검색일: 2026.6.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9〉 돼지고기 생산(좌)과 수출(우) 전망



주 1) 점선 오른쪽 자료는 예측치임.

2) 생산 전망의 무게는 도체중 기준이며, 수출 전망의 무게는 선적 중량 기준임.

자료: ABARES(2026: 99-100).

2.3.2. 무역 전망

호주 돼지고기 생산물의 대부분은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27년 호주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4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생산량의 약 11%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호주 돼지고기 수출액은 국내 생산량 증가와 세계 돼지고기 수출 가격 강세에 힘입어 2026/27년 약 2억 9백만 호주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수요가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6/27년의 수출액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에 따라 호주와 인접한 수출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돼지고기 수출 및 수입 전망

단위: 천 톤(선적 중량 기준), 백만 호주 달러, 호주 달러/kg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7/28 ^z	2028/29 ^z	2029/30 ^z	2030/31 ^z
수출량	42.5	40.8	39.3	39.7	40.5	41.3	42.1	43.0
수출액	211	207	201	209	216	223	230	236
수출 평균 단가	5.0	5.1	5.1	5.3	5.3	5.4	5.4	5.5
수입량	155	170	143	146	147	149	150	151
수입액	867	1,011	888	923	969	1,018	1,069	1,122
수입 평균 단가	5.6	6.0	6.2	6.3	6.6	6.9	7.1	7.4

주 1) 평균 단가는 수출액을 수출량(또는 수출 두수)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2)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 z는 중기 전망치임.

자료: ABARES(검색일: 2026.6.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3.3. 가격 전망

2026/27년 호주의 돼지고기 가격(national over-the-hooks pig price)은 전년 대비 약 3% 상승한 1kg당 평균 484 호주 센트로 전망된다. 이는 실질가격 기준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약 9% 높은 수준이다. 국내 돼지고기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가 이를 상회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발생의 영향, 소고기·양고기의 높은 가격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 가공업체 간 국내산 돼지고기 확보 경쟁이 가격을 지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호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주로 신선육(fresh pork) 공급에 사용되며, 일부만 가공육 제품 생산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제한적인 국내산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가공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2025/26년과 2026/27년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돼지고기 가공업체는 일반적으로 국내산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수입 돼지고기에 의존해 소비자 수요를 충족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의 영향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 확보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소고기와 양고기의 높은 가격은 돼지고기에 대한 대체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호주 가공업체와 외식업체는 수익성 유지를 위해 제품 내 돼지고기 사용 비중을 확대하거나 돼지고기를 주요 원료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육류 간 대체 가능성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6/27년 돼지고기 가격에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 돼지고기 지육 직거래 가격 전망

단위: 호주 센트/kg(도체중 기준)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7/28 ^z	2028/29 ^z	2029/30 ^z	2030/31 ^z
지육 직거래 가격	396	438	468	484	489	494	499	504
실질가격	419	452	468	471	463	457	450	443

주 1) 지육 직거래 가격은 over-the-hooks price를 말함.

2) 실질가격은 2025/26 호주 달러 기준 실질 가치임.

3)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 z는 중기 전망치임.

자료: ABARES(검색일: 2026.6.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3.4. 불확실성 및 위험, 기회요인

2026/27년 호주의 돼지고기 산업은 가축 질병 발생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

로 예상된다. 반면, 돼지고기에 대한 견고한 수요와 건강에 대한 소비자 선호 확대는 돼지고기의 산업 성장의 기회요인으로 평가된다.

가축 질병 발생은 호주 돼지고기 산업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축 폐사율 증가, 생산성 저하, 소비자 가격 상승, 방역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자와 소비자에 여전히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호주 돼지고기 산업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유럽연합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수입된 오염된 돼지고기 제품이 가축 사료에 포함되거나 야생 돼지가 이를 섭취할 경우, 질병 확산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5년 2월 퀸즐랜드 남부와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의 두 양돈장에서 발생한 일본뇌염 바이러스(JEV: Japanese Encephalitis Virus) 역시 호주 양돈 산업에 주요 위험 요인으로 평가된다.²³⁾

반면, 수요 측면의 변화는 호주 돼지고기 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호주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대체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육류 구성은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비중은 2014/15년 1인당 육류 소비량의 67%에서 2024/25년에 76%로 증가하였다. 인구 증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가계 예산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돼지고기로의 대체 소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돼지고기의 활용도, 조리 편의성, 공급 안정성,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이 돼지고기 선호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2.3.5. 중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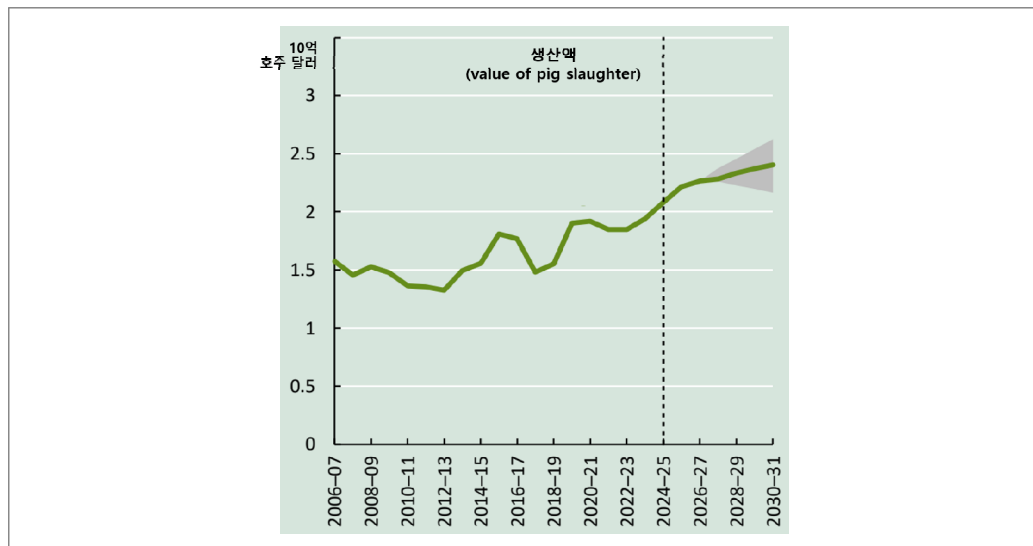
2030/31년 호주 돼지고기 산업 중기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생산 및 세계 수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액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돼지고기 산업은 수출 확대 등 국제시장보다는 국내 소비 증가와 생산량 확대에 의해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비용의 변화는 주요 생산량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3) 일본뇌염 바이러스(JEV)는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수태지의 불임을 초래하여 돼지의 번식 손실을 유발할 수 있음.

호주 돼지고기 산업의 주요 위험 요인은 사료용 곡물 가격 변동이 지목된다. 돼지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는 기후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기에 가뭄이나 곡물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경우, 생산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고기와 양고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육류 간 대체효과가 악화되며 돼지고기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내 인구 증가와 견고한 소비 수요가 돼지고기 생산 확대를 견인하는 주요 기회 요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소고기와 양고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소비자의 돼지고기 선호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양호한 기후 여건에 따른 곡물 생산 증가와 사료비 하락은 생산비 절감을 통해 생산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ASF 등의 영향으로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0〉 연간 돼지고기 생산액 증기 전망(실질 가치 기준)



주 1) 단위는 10억 호주 달러(billion)이며, 2025/26년 호주 달러 기준으로 물가 조정된 실질 가치 기준임.

2) 점선 오른쪽 자료는 예측 및 전망치이며, 음영 부분은 기후 및 가격 변동성을 바탕으로 한 전망(projection) 범위임.
자료: ABARES(2026: 98).

2.4. 가금류(Poultry) 전망

2.4.1. 생산 전망

2026/27년 호주 가금류 생산량(poultry meat production)은 생산성 향상과 가공 능력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약 2% 증가한 160.9만 톤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후 전망에 대해서도 도축 두수와 생산량 모두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은 도체중 기준으로 환산된 값이며, 평균 도체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절단육 및 2차 가공 제품에 사용되는 대형 가금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1〉 닭고기 생산 전망

단위: 백만 두(도축), 천 톤(생산, 도체중 기준)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7/28 ^z	2028/29 ^z	2029/30 ^z	2030/31 ^z
도축 두수	734	752	774	783	794	805	816	828
생산량	1,449	1,535	1,581	1,609	1,642	1,675	1,708	1,742

주 1)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 z는 중기 전망치임.

자료: ABARES(검색일: 2026.6.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4.2. 무역 전망

호주 가금류는 돼지고기와 같이 생산량 대부분이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며, 생산량의 약 5%가 수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2026/27년 가금류 수출량은 전년 대비 약 2% 증가한 6.4만 톤으로 전망된다. 2026/27년 생산액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1억 3천만 호주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가금류 고기 수요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액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돼지고기와 같이 가금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인접 수출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 닭고기 수출 전망

단위: 천 톤(선적 중량 기준), 백만 호주 달러, 호주 달러/kg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7/28 ^z	2028/29 ^z	2029/30 ^z	2030/31 ^z
수출량	52.8	46.5	62.7	63.7	64.5	65.2	66.0	66.8
수출액	138	119	124	129	134	139	145	149
수출 평균 단가	2.6	2.6	2.0	2.0	2.1	2.1	2.2	2.2

주 1) 수출량은 육가공품(prepared meat), 보존육(preserved meat), 식용 부산물 및 혈액(meat offal and blood)을 포함함.

2) 평균 단가는 수출액을 수출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3)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 z는 중기 전망치임.

자료: ABARES(검색일: 2026.6.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4.3. 가격 전망

2026/27년 호주의 가금육 가격은 전년 대비 약 1% 하락하여 도체중 기준 1kg당 256 호주 센트로 전망된다. 이는 실질 금액 기준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약 8% 낮은 수준이다. 가격 하락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생산비 상승 영향을 상쇄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4.4. 불확실성 및 위험, 기회요인

2026/27년 호주 가금류 산업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는 조류인플루엔자이다. 호주가 과거 H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종식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발생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에서부터 호주로 이동오는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H5 계열의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금류 및 계란 생산 시 방목형 사육 방식이 확대될 경우, 야생 조류와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져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노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도시 확장은 또 하나의 공급 위험 요인으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농장 및 가공시설은 상품의 운송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소비시장 근처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다. 그러나, 주택 및 기반 시설 수요 증가로 향후 집약적 축산 시설이 도시에서 더욱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해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송비 증가,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가금류는 돼지고기와 함께 소고기 또는 양고기의 대표적인 대체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소고기와 양고기 가격이 높은 경우, 소비자들의 대체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가금육 소비와 생산 확대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4.5. 중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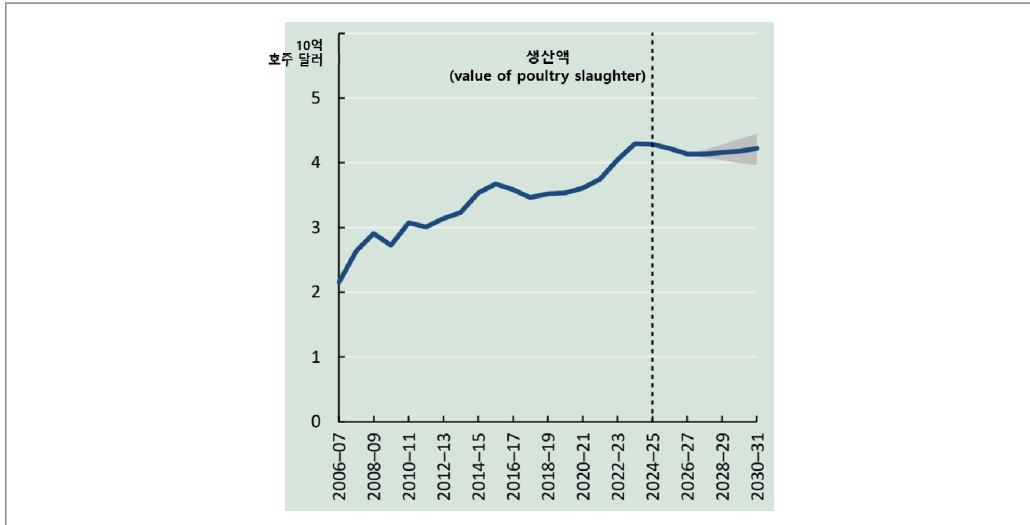
2030/31년 호주 가금류 산업은 국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가금육 생산량 증가는 생산성 향상과 가공 능력 확대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평균 도체중 증가와 가공시설 확충은 생산량 확대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금류 산업은 집약적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료비는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후 여건에 따른 사료용 곡물 가격 변동은 생산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양호한 기후 여건이 지속될 경우 국내 곡물 생산량 증가와 사료비 하락이 가금육 생산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고기와 양고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육류 간 대체효과에 따라 가금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생산성이 추세를 상회하여 증가할 경우 평균 도체중과 가공 능력이 확대되면서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하방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 건조한 기후가 지속될 경우 국내 곡물 생산량 감소로 사료용 곡물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소고기와 양고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육류 간 대체효과가 약화되면서 가금육 소비 증가세가 둔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건조한 국내 수요는 가금육 생산량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 연간 가금류 생산액 증기 전망(실질 가치 기준)



주 1) 단위는 10억 호주 달러(billion)이며, 2025/26년 호주 달러 기준으로 물가 조정된 실질 가치 기준임.

2) 점선 오른쪽 자료는 예측 및 전망치이며, 음영 부분은 기후 및 가격 변동성을 바탕으로 한 전망(projection) 범위임.
 자료: ABARES(2026: 98).

2.5. 유제품(Dairy products)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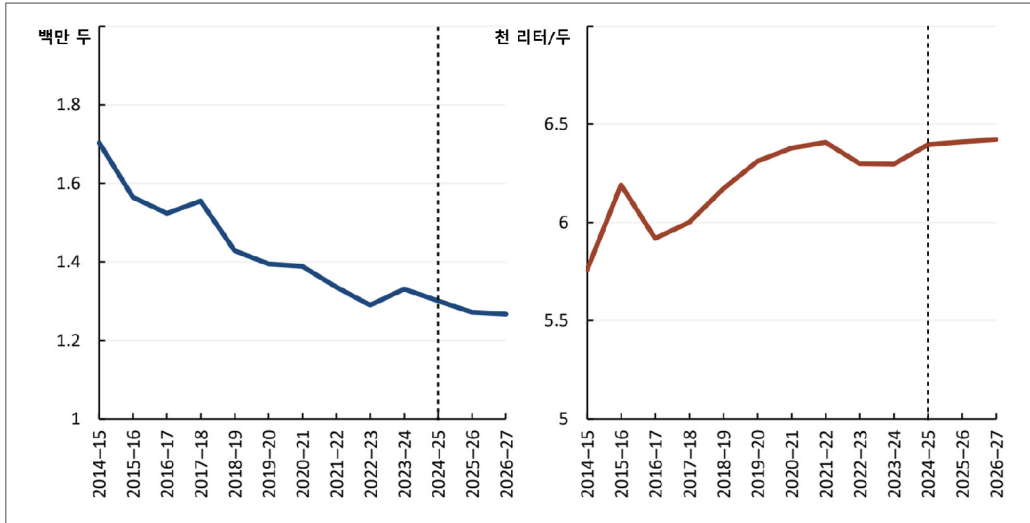
2.5.1. 생산 전망

2025/26년 호주의 원유(milk)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2% 감소한 데 이어, 2026/27년도 전년 대비 약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낙농산업의 장기적인 구조조정(long-term consolidation)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두 해(2025/26년, 2026/27년) 모두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우유 생산량 증가를 상쇄하고도 남을 젖소 사육 두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젖소 사육두수 감소는 낙농가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일부 낙농 지역의 건조한 기후 및 높은 소 가격으로 인해 사육두수 감축이 촉진된 데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²⁴⁾ 두 해 모두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즈, 버터, 분유 등 제조용 원유 가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두 해에 유제품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4) 반면, 두당 원유 생산량은 젖소의 유전적 개량(genetic improvement)과 보조사료 급여 확대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2〉 연간 젖소 사육 두수(좌), 젖소 1두당 평균 원유 생산량(우) 전망



주 1) 점선 오른쪽 자료는 예측치임.
 자료: ABARES(2026: 93).

〈표 13〉 원유 및 주요 유제품 생산 전망

단위: 천 두(사육), 리터/두, 백만 리터(원유 생산량), 천 톤(유제품)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7/28 ^z	2028/29 ^z	2029/30 ^z	2030/31 ^z
젖소 사육 두수	1,330	1,300	1,271	1,255	1,231	1,208	1,185	1,162
두당 산유량	6,298	6,396	6,409	6,422	6,454	6,486	6,519	6,551
원유 생산량	8,376	8,315	8,149	8,059	7,945	7,833	7,723	7,614
음용유 판매	2,383	2,340	2,325	2,306	2,287	2,292	2,297	2,302
제조용 원유	5,993	5,975	5,824	5,753	5,658	5,541	5,426	5,312
버터	67.8	40.7	40.5	40.0	37.8	37.5	37.2	36.9
치즈	386	431	425	420	395	392	389	386
전지분유	25.6	27.7	26.0	25.0	24.5	24.3	24.1	23.9
탈지분유	155	171	168	166	148	147	145	144

주 1) 사육 두수는 6월 30일 기준이며, 착유 중인 젖소(cows in milk)와 건유우(dry cow)를 포함함.
 2) 버터는 2024/25 이전에는, 버터오일(butter oil), 버터 농축물(butter concentrate), 무수 유지방(dry butterfat), 기(ghee)를 버터 환산 기준으로 포함함.
 3) 치즈는 가공 치즈(processed cheese)는 제외함.
 4)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 z는 중기 전망치임.
 자료: ABARES(검색일: 2026.6.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5.2. 무역 전망

2026/27년은 원유 공급량 감소에 따라 호주 유제품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시유(market milk)에 대한 국내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유제품 가공에 활용할 수 있는 원유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치즈와 버터의 수출량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소득 증가에 따라 고부가가치 상품인 유지방(milkfat)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부산물인 탈지분유 수출량은 치즈, 버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지분유는 뉴질랜드와 같은 분유 수출국의 우유 생산량이 증가하며, 수출에 부담이 생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4〉 유제품 수출 전망

단위: 백만 호주 달러, 천 톤(수출량)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7/28 ^z	2028/29 ^z	2029/30 ^z	2030/31 ^z
수출액	3,377	3,727	3,585	3,405	3,399	3,405	3,481	3,549
버터 수출량	13.6	19.4	18.6	18.0	13.2	11.2	11.2	11.1
치즈 수출량	151	169	166	164	154	153	152	150
탈지분유 수출량	144	158	153	149	127	126	125	124
전지분유 수출량	31.6	45.7	43.2	14.3	36.8	31.6	31.4	31.1

주 1) 버터는 2024/25 이전에는, 버터오일(butter oil), 버터 농축물(butter concentrate), 무수 유지방(dry butterfat), 기(ghee)를 버터 환산 기준으로 포함함.

2)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 z는 중기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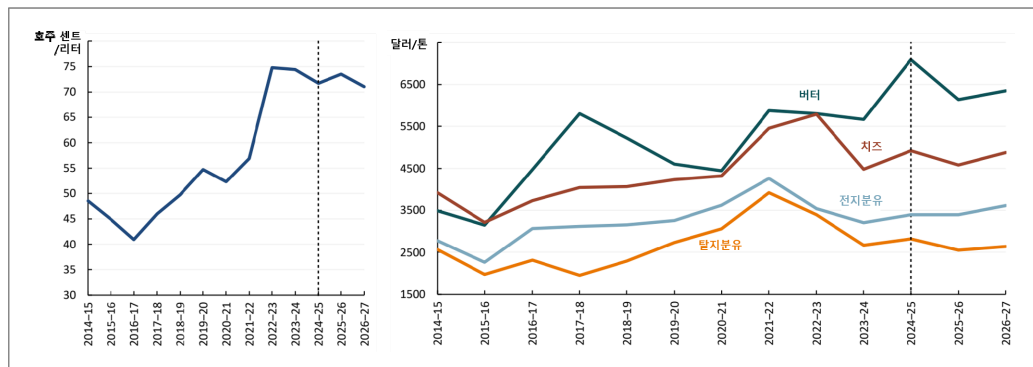
자료: ABARES(검색일: 2026.6.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5.3. 가격 전망

2026/27년 농가 원유 생산자 가격(farmgate milk)은 전년 대비 약 3% 하락한 리터당 평균 71 호주 센트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2026/27년 생산자 가격 하락은 회계연도 초반의 호주산 유제품 수출가격 약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원유 생산량 감소와 회계연도 후반의 유제품 수출가격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초반의 수출가격 약세는 가공업체가 생산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원유 구매 가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²⁵⁾

반면, 2026/27년 호주 유제품 수출가격은 작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유제품 생산량 증가세 완화와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5/26년은 주요 생산국의 젓소 사육두수 회복과 유제품 생산 여건 개선에 따라 수출 가능한 공급 물량이 증가하였으나, 2026/27년에는 이러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호주를 포함한 비(非) 유럽연합(EU)산 치즈에 대한 수요를 일부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²⁶⁾

〈그림 13〉 연평균 원유 생산자 가격(좌)과 연평균 유제품 수출가격(우) 전망



- 주 1) 점선 오른쪽 자료는 예측치임.
 - 2) 버터는 기(ghee), 무수 유지방(dry butterfat), 버터 농축물(butter concentrate), 버터 스프레드(butter spreads)를 포함함.
 - 3) 원유 생산자 가격은 호주 센트 기준이며, 수출가격은 미국 달러 기준임.
- 자료: ABARES(2026: 92).

〈표 15〉 유제품 가격 전망

단위: 호주 센트/리터(원유 생산자 가격), 달러/톤(국제가격)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7/28 ^z	2028/29 ^z	2029/30 ^z	2030/31 ^z
원유 생산자 가격	74.4	71.7	73.5	71.1	73.7	76.3	79.7	84.2
버터 국제가격	5,667	7,096	6,138	6,492	6,851	7,201	7,568	7,892
치즈 국제가격	4,483	4,921	4,719	5,075	5,245	5,484	5,762	6,053

25) 2026/27년 원유 생산자 가격은 하락하더라도 이는 최근 10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최근 수년간 지속된 높은 원유 가격이 조정(re-adjustment) 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2025/26년 가격은 전년 대비 약 3% 상승한 리터당 평균 73.5 호주 센트로 전망됨).

26) 2025/26년은 미국과 유럽연합 젓소 사육두수 회복, 뉴질랜드의 생산 여건 강화 등에 따른 유지방(milkfat) 및 분유(milk powders) 수출 가능 물량 증가 등 유제품 공급이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2025/26년 호주 유제품 수출가격은 작년(2024/25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고지방 유제품(high-milkfat products) 가격은 분유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계속)

구분	2023/24	2024/25 ^s	2025/26 ^f	2026/27 ^f	2027/28 ^z	2028/29 ^z	2029/30 ^z	2030/31 ^z
탈지분유 국제가격	2,667	2,819	2,554	2,733	2,997	3,158	3,325	3,501
전지분유 국제가격	3,204	3,846	3,393	3,616	3,961	4,155	4,357	4,569

주 1) 원유 생산자(산지) 가격: farmgate milk price.

2) s는 추정치, f는 예측치, z는 중기 전망치임.

자료: ABARES(검색일: 2026.6.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5.4. 불확실성 및 위험, 기회요인

2026/27년 호주 낙농산업에서 환경규제 강화와 가축 질병 발생 가능성(biosecurity)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A-EU FTA) 체결 가능성은 호주산 유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평가된다.²⁷⁾

우선, 주요 낙농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환경규제 강화는 호주 낙농산업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분석된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될 경우 전 세계 원유 및 유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등 주요 유제품 수출국에서 추가적인 환경규제가 도입될 경우, 젖소 사육두수 증가가 제한되고 유제품 수출 공급량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축 질병은 호주 낙농산업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평가된다. 호주 북부 인접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렘피스킨병(LSD)과 구제역(FMD)이 모두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질병이 호주로 유입될 경우, 유제품 수출시장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낙농산업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호주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계 및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²⁸⁾

반면, 호주-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A-EU FTA)은 호주 낙농산업의 주요 기회요인으로 평가된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제품의 유럽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호주산 유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

27) 호주-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2026년 3월 24일 체결됨.

28) 렘피스킨병(LSD)은 살아있는 가축과 번식용 자재를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오염된 장비, 파리, 모기 등의 흡혈 곤충, 진드기와 같은 기생충에 의해서도 확산될 수 있음.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유제품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5.5. 중기 전망

2030/31년 호주 낙농산업의 중기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생산 및 세계 수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원유 생산액(production value)은 실질 금액 기준 56억 호주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²⁹⁾ 이는 원유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자 가격(farmgate milk price) 상승이 이를 상쇄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제품 수출액(export value)은 실질 금액 기준 31억 호주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호주의 원유 생산량은 젖소 사육두수 감소에 따라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31년까지의 인구 증가에 따른 시유(market milk) 수요 확대와 국내 원유 공급 감소는 가공업체 간 원유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며 원유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액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제품 수출액은 수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출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³⁰⁾

생산액 및 수출액의 중기 전망에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할 경우, 목초 생육이 개선되고 사료비 등 운영비가 감소하여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수출 감소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유제품 수요가 소폭 증가하여 수출가격 상승과 주요 유제품 수출국(미국, 뉴질랜드 등)의 생산 여건 악화에 따른 공급 둔화로 호주 낙농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 증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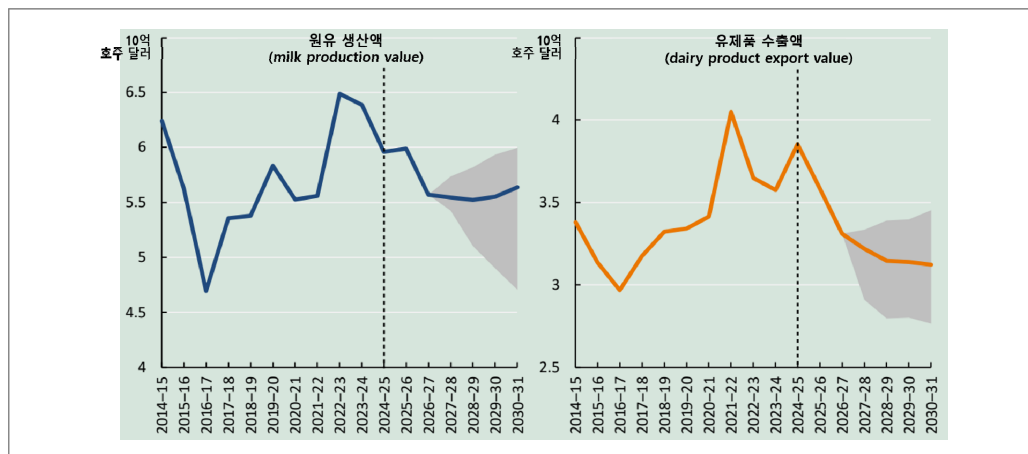
반면 생산액과 수출액의 하방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 첫째, 건조한 기후가 지속될 경우 사료 및 물 비용이 증가하면서 원유 생산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낙농가의 폐업 증가와 생산 기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29) 원유 생산액은 47억 호주 달러에서 60억 호주 달러 사이로 전망됨.

30) 동남아시아 지역의 가치분 소득 증가와 버터, 체더치즈와 같은 고부가가치(high-value product) 유제품에 대한 1인당 소비 확대로 인해 수출가격이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중국의 수요 증가세 둔화, 호주 달러의 강세는 국제 수출시장에서 호주산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원유 생산량 감소는 가공업체 간 경쟁을 심화시켜 원유 가격을 지지할 수 있으나, 세계 경기 둔화가 발생할 경우 원유 농가수취가격 상승 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주요 유제품 수출국의 생산 여건이 양호할 경우 국제 유제품 가격이 하락하여 호주 낙농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4〉 연간 원유 생산액 및 유제품 수출액 증기 전망(실질 가치 기준)



주 1) 단위는 10억 호주 달러(billion)이며, 2025/26년 호주 달러 기준으로 물가 조정된 실질 가치 기준임.
 2) 점선 오른쪽 자료는 예측 및 전망치이며, 음영 부분은 기후 및 가격 변동성을 바탕으로 한 전망(projection) 범위임.
 자료: ABARES(2026: 91).

3. 요약 및 시사점

2026/27년 호주 축산업은 축종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기후 여건, 국제 무역 환경, 생산성 변화, 그리고 가축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와 양 산업은 최근 높은 도축 수준에 따른 사육 두수 감소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돼지와 가금류 산업은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량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낙농산업은 젖소 사육 두수 감소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측면에서는 소고기, 양고기, 유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이 국제시장 여건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 브라질의 수출 경쟁

력 확대 등은 호주 축산물 수출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6년 3월 체결된 A-EU FTA는 소고기, 양고기, 유제품의 EU 시장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남아시아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인구 증가와 소득 향상은 호주 축산물 수요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가격 측면에서는 축종별로 상이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와 양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 여건과 가공업체 수요 변화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돼지고기 가격은 국내 수요 증가로 인해 높은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 변화는 대부분 축종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핵심 위험 요인으로 평가된다. 건조한 기후가 지속될 경우, 목초 생육 악화와 사료용 곡물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사육두수 감소와 생산 기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렘피스킨병(LSD),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일본뇌염(JEV) 등 가축 질병 발생 가능성은 생산뿐 아니라 수출시장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생물보안(biosecurity)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030/31년, 중기적으로는 인구 증가와 단백질 소비 확대가 호주 축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 지역 등 신흥국의 소득 증가와 식생활 변화는 육류 및 유제품 수요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 불확실성과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확대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 사료 효율성 제고, 질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는 소고기, 유제품 등 주요 축산물의 핵심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호주 축산업의 생산 및 수출 여건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 변동성 확대와 가축 질병 발생 가능성은 국제 축산물 공급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쳐 국내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소득 증가와 단백질 소비 확대는 호주산 축산물에 대한 국제 수요를 증가시켜 우리나라의 수입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업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축산물에 대한 공급망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질병 대응 역량 제고를 통해 국제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허덕(2022), 호주 Wagyu의 위상과 개량 실태, 해외곡물시장동향, 11(4), 157-183.

ABARES(2026), 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 March quarter 2026, 16(1), ABARES, Canberra, a, DOI: <https://doi.org/10.25814/98pm-3f48>.

<온라인 자료>

ABARE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june-2026>), 검색일: 2026. 6. 7.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https://www.dfat.gov.au/trade/agreements/not-yet-in-force/aeufta>), 검색일: 2026. 6. 13.